



2023 전라북도 20대 아젠다



2023 AGENDA 20

- 01 Preparing for the New Jeonbuk Era,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02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local government in Saemangeum
- 03 Creation of Saemangeum Global Food Hub
- 04 Preliminary response to new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preliminary fassibility

- 05 Jeonbuk-led Special Opportunity Development Zone Designation
- 06 Stabilization of Gunsan Shipyard and Expansion of Locally-led Jobs
- 07 Designated as a national high-tech strategic industrial complex
- 08 Cultivation of Jeonbuk-type carbon neutral core technology

- 09 Establishment of Food Tech and Smart Agricultural Ecosystem
- 10 Creation of a smart farm startup special zone for young farmers
- 11 Implementation of Jeonbuk Comprehensive Food Strategy
- 12 Vitalization of rural living economy and social services

- 13 Successfully host the 25th World Scout Jamboree and 2nd Asia Pacific Masters Game
- 14 Revitalization of Jeonbuk tourism based on healing resources
- 15 Creating a Sustainable Eco Samchully Trail
- 16 Promotion of base for traditional culture industry

- 17 Successful settlement of hometown love donation system for regional vitality
- 18 Establishment of Jeonbuk-specific integrated welfare platform
- 19 Ensure safe daily life for women
- 20 Establish Provincial office, Education Office, University, Company Cooperation System

New Jeonbuk
and Balanced
Development

Jeonbuk
economy leap to
success

smart
agricultural life
industry

Base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dustry

Jeollabuk-do
resident's
happiness,
educational
cooperation

20대 아젠다

- 01 새로운 전북시대, 전북특별자치도 준비
- 02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
- 03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 04 신규 대형국책사업 예타 대응

새로운 전북·균형발전

- 05 전북 주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 06 군산조선소 안정화와 지역주도 일자리 확대
- 07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 08 전북형 탄소중립 핵심기술 육성

전북경제 성공도약

- 09 푸드테크, 스마트농업 생태계 구축
- 10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
- 11 전북 먹거리 종합전략 시행
- 12 농촌 생활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스마트 농생명산업

- 13 잼버리·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공 개최
- 14 치유자원 기반 전북관광 재도약
- 15 지속가능 에코 삼천리길 조성
- 16 전통문화산업 거점화 추진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 17 지역활력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정착
- 18 전북형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
- 19 여성의 안전한 일상 보장
- 20 도-교육청-대학-기업 협력체계 구축

도민행복 교육협력

도전경성(挑戰竟成), 새로운 전북시대를 위한 변화와 도약

새로운 전북· 균형발전

01. 새로운 전북시대, 전북특별자치도 준비
02.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
03.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04. 신규 대형국책사업 예타 대응

전북경제 성공도약

05. 전북 주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06. 군산조선소 안정화와 지역주도 일자리 확대
07.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08. 전북형 탄소중립 핵심기술 육성

스마트 농생명산업

09. 푸드테크, 스마트농업 생태계 구축
10.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
11. 전북 먹거리 종합전략 시행
12. 농촌 생활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2023년 계묘년이 밝았지만 코로나19와 함께 기후위기, 인구감소, 저성장, 에너지, 양극화 등 국내외 적으로 커다란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준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푸드테크,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잼버리·아태마스터스대회,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통해 지역혁신과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도민과 함께 기회를 활용한 능동적인 변화를 만들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이른바 ‘새로운 전북’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 13. 잼버리·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공 개최
- 14. 치유자원 기반 전북관광 재도약
- 15. 지속가능 에코 삼천리길 조성
- 16. 전통문화산업 거점화 추진

도민행복
교육협력

- 17. 지역활력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정착
- 18. 전북형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
- 19. 여성의 안전한 일상 보장
- 20. 도-교육청-대학-기업 협력체계 구축



새로운 전북·균형발전

2023년은 새로운 전북시대 준비를 위한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독자권역으로의 위상과 특례를 갖추기 위한 혼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새만금 중심의 경제공동체인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 추진과 새만금의 농생명산업 기반과 공항-항만-철도 트라이포트 물류 기능의 연계를 극대화하기 위한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이 추진된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전북의 신규 대규모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01

새로운 전북시대, 전북특별자치도 준비

2022년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관련 법률 공포 후 1년 후에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되고, 도민은 특별자치도민이 된다. 그동안 도민의 염원이었던 당당한 독자권역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2023년에는 새로운 전북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가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부합하는 자치권 확대와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등과 관련된 특례를 발굴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02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

2022년 1월 13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도 새만금 개발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주변 지역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새만금과 인접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 중이다. 2023년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3개 시군의 합의를 통한 합동추진단 출범 등 관련 행정절차 및 제도 개선으로 전라북도와 새만금의 연계발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03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새만금을 '글로벌 푸드허브'로 조성해야 한다. 새만금 신항만 물류기능을 연계한 식품수출특화단지 조성, 곡물비축기지 조성 등은 새만금만이 할 수 있는 정책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국내 유일의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보유한 전라북도는 새만금의 넓은 농생명용지와 해상, 항공 등 트라이포트 물류장점을 극대화하여 새만금을 글로벌 푸드허브로 조성하고, 관련된 산업육성과 기업 유치를 통해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

04

신규 대형국책사업 예타 대응

2023년도에도 전북의 미래먹거리 기반을 다지기 위해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사업,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이 치열하게 진행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함께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북경제 성공도약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인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산업을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예고되어 있어 전북의 첨단산업 경쟁력강화를 통한 경제도약의 기반 구축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다시 가동을 시작한 군산조선소의 조기 안정화를 통해 전북 조선산업 재도약을 선도하고 지역주도 일자리정책으로 고용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 기술혁신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북형 탄소중립 핵심기술 수립이 필요하다.



05

전북 주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2023년에는 정부의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이 주도하여 일단의 지역에 대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라북도는 지역 특성과 산업 전망을 고려한 특화산업 및 적정입지 선정, 투자기업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회발전특구를 지역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06

군산조선소 안정화와 지역주도 일자리 확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중단 5년여 만인 지난 2022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가동을 시작하면서 2023년 부터는 전라북도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 일자리, 물류 등 군산조선소의 조기가동 안정화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일자리 정책 및 사업의 분권화, 지역고용위기 선제대응 강화, 지역주도 일자리창출 기반 조성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고용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07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2023년에는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인해 향후 국가 미래 먹거리가 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산업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북은 최근 9개의 이차전지 기업을 새만금에 유치했고, 익산, 완주 등에서도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연이은 기업투자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의 여세를 몰아 확실한 선도기업의 유치와 특화단지 지정으로 전북을 이차전지의 메카로 탈바꿈해야 한다.

08

전북형 탄소중립 핵심기술 육성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17대 분야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탄소중립 기술혁신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주도의 임무중심 기술혁신, 신속 유연한 R&D 투자강화, 범부처 협업체계 등으로 국내 탄소중립 여건을 혁신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수 있는 전북형 탄소중립 핵심기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스마트 농생명산업

2023년에는 식품관련 R&D와 플랫폼 구축 등 이른바 푸드테크와 함께 스마트농업 생태계 구축이 농식품산업의 혁신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농생명산업 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전북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과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핵심거점인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이 추진되며, 건강한 먹거리 보장과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전략이 시행된다. 또한 전라북도는 농촌사회의 생활경제 서비스지원을 통해 농촌지역의 사회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09

푸드테크, 스마트농업 생태계 구축

음식(Food)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푸드테크(FoodTech)가 농식품산업의 혁신 키워드로 주목되고 있다. 사회구조 변화와 코로나19 영향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개인 맞춤형 식품소비가 증가하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 등을 활용한 식품관련 연구개발과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4차산업 첨단기술의 발달은 농업분야의 스마트화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위기의 시대에 리스크를 줄이고,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지역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다.

10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

신정부는 대선 공약사업으로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을 약속하였다. 창업특구로 지정되면 대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시설,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농업·농촌의 미래세대 유입을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다. 창업특구 지정·조성을 통해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과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핵심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11

전북 먹거리 종합전략 시행

올해는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전략”이 본격 시행된다. 먹거리 정책의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전북먹거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실행조직으로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학교·공공급식의 확대, 먹거리 돌봄 연계 등으로 먹거리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도민의 먹거리 이해·실천력을 높이는 교육활동 등도 주요 전략이다. 로컬푸드 1번지를 넘어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실천하는 ‘지역 먹거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12

농촌 생활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농촌지역에 부족한 돌봄, 교육, 보육 등 서비스를 주민자치조직을 통해 채워가는 ‘농촌지역 공동체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전라북도는 국가의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를 유치했다. 전라북도가 농촌사회의 생활경제 서비스를 지원할 인력육성과 기반조성을 총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전북은 과소화·고령화된 농촌지역에서 주민 자치역량을 토대로 생활경제 사회서비스를 채워가는 농촌사회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2023년에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 대회가 전북에서 개최된다. 두 대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전북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2023년은 코로나로 인한 펜데믹에서 엔데믹 시대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전북의 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전북관광의 재도약을 도모하고, 전북의 환경자산을 활용한 에코 삼천리길 조성을 통해 방문객에게 지속가능한 생태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이 2023년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라북도가 전통문화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13

잼버리·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공 개최

2023년 5월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와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연달아 전북에서 개최된다. 마스터스대회는 은퇴선수와 생활체육인들이 실력을 뽐내는 축제의 장이다. 잼버리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문화를 교류하고 우애를 다지는 소통의 장이다. 전북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오롯이 간직한 곳이다. 두 대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체험하게하고 더 나아가 전북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14

치유자원 기반 전북관광 재도약

코로나19로 침체된 전북관광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안전·안심 관광지 전북의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콘텐츠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전북이 보유한 비교우위 자원인 산림, 생태, 농촌, 치유관광 자원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휴양·힐링 관광지로 브랜드 이미지 구축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체류관광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15

지속가능 에코 삼천리길 조성

2023년에는 만경강을 살리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완성되고 만경강을 명품하천으로 거듭나게 할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으며 전라북도 전체를 잇는 에코 삼천리길이 동부산악권을 시작으로 구축되면서 보전을 통해 가치가 상승된 환경자산들이 보전과 발전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함 방향으로 도민과 방문객들에게 생태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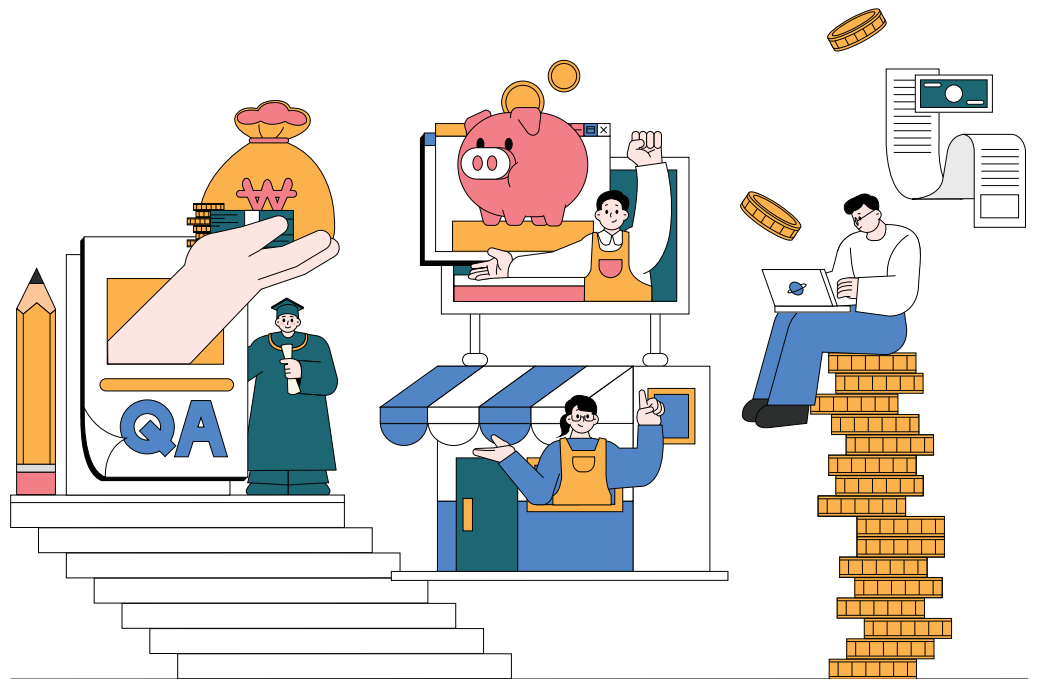
전통문화산업 거점화 추진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이 2023년에 제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이 제정되면 독자적으로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조직이 갖춰지며, 연구개발, 표준화, 전통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우수 전통문화상품의 지정,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이 지원된다. 전라북도가 전통문화산업의 거점이 되도록 법 제정 이전에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도민행복 교육협력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혁신과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만 한다. 또한 원스톱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한 전북형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이 시작되며,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역소멸 위험과 지방대학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방대학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17

지역활력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정착

국민의 자발적 기부로 지역의 경제적 활력과 사회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또한 2023년을 맞이해 인구감소대응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활력, 공간활력, 인구활력을 위한 전라북도 인구정책이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하고 전국의 혁신적 인구와의 관계형성을 통해 지역혁신과 활력을 높이는 한해로 만들어야 한다.

18

전북형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

전라북도 본청뿐만 아니라 시군의 모든 복지자원과 복지서비스를 하나의 전산망으로 통합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체감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2023년부터는 생애주기별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자원과 복지정책을 지원 유형과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단일된 전산망으로 통합관리하여 모든 도민이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를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북형 원스톱 복지서비스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19

여성의 안전한 일상 보장

2023년도 전북 여성의 안전한 일상 보장을 위해 5대 폭력(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권력형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이 요청된다. 폭력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해 고위층을 비롯한 도민의 예방교육 강화, 지자체의 자체 관련 예산 확보 및 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0

도-교육청-대학-기업 협력체계 구축

지방대학 위기와 지방소멸 위험에 대응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기업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해야 해야 한다. 전라북도와 시군 그리고 대학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 고등교육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교육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2023 전라북도 20대 아젠다



발행인 권혁남 발행처 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